

▶적대적 M&A흐름

M&A관련법은 인위적이고 정책적으로 제정되었지만 M&A자체는 그렇지 않다. M&A는 M&A자체의 시너지효과, 긍정적 메카니즘이 포함되어 있어 상호간의 이해타산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.

일반적으로 쌍방이 자발적으로 M&A를 추구하고자 할 때 이를 우호적 M&A라는 표현을 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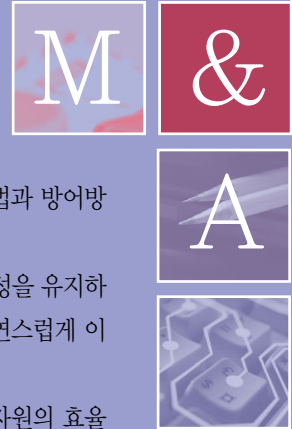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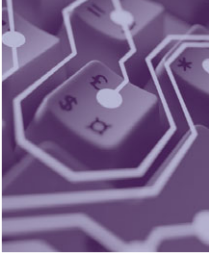
반면에 어느 일방이 비자발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강제적으로 M&A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적대적 M&A라 한다.

얼핏 보기엔 적대적 M&A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. 물론 이 말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하며, 이에 동조하거나 편을 드는 숫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.

하지만 점점 적대적 M&A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줄어들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, M&A시너지효과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.

적대적 M&A(I)





(주)이창앤앤에이컨설팅 창앤앤

각 나라의 M&A에 대한 관련법규는 공격과 방어수단에 중립적이며 양쪽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.

즉 정부는 공격자와 방어자간에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주고 대신에 보다 구체화된 세부적 공격방법과 방어방법의 활용에 대해선 각자에 맡겨 둔 상태이다.

세계적으로도 적대적 M&A에 대한 공격자와 방어자의 자유로운 경영권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중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. 더 나아가 적대적 M&A도 M&A의 정상적인 한 추세로 보아 공격과 방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점점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.

적대적 M&A의 찬성론자들은 감사기능대리로 소액주주의 富증대, 산업재편으로 기업퇴출 용이,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 중복지자 방지 및 경영의 체질 강화 등을 꼽는다.

반대론자들은 R&D등 중장기 경영목표 무시, 과도차입에 의한 재무상태부실화, 독과점 수단으로의 전략 등을 꼽아 반대한다.

결국은 적대적 M&A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, 경영자의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,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수행 등으로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기여의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, 역으로 건실한 경영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비용, 노력을 쏟아야 하는 소비성 낭비, 비논리적인 방어수단 수행, 터무니 없는 공격으로 주식시장 및 주식가치 왜곡, 힘으로 뺏으려는 부도덕한 한탕주의 등의 부작용도 있다. 결론적으로 경영권에 대한 쫓고 쫓기는 관계, 화살과 방패의 관계에 대해 순작용 및 역작용 모두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.

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분적으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동안 유구한 세월 속에서 인류가 걸어온 역사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듯이 적대적 M&A도 지속적으로 흘러 또 하나의 M&A장르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.

M&A는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전제로 생긴 말이다.

경영권획득을 위해 자기편 임원이 상대편 임원보다 많아야 하는데 임원선임을 주주총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주총에서의 표대결(위임장 대결)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.

일반적으로 적대적 M&A는 상장회사(유가증권시장, 코스닥시장)를 대상으로 해서 일어난다. 장외기업인 경우 상장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익이 적으며, 주식거래가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식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.

▶적대적 M&A는 왜 시도되는가 ?

첫째, 상대회사가 사업성, 시너지창출 등에서 맘에 들 경우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함이다. 실제로 우호적M&A를 추진하다가 어려울 경우 적대적 M&A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.

둘째, 상장회사의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매우 높아 (시장에서 실제 매도지분 시장가치의 3~4배에 거래) 적대적 M&A에 성공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셋째, 경영권획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경영에 일부참여(일부 임원선임 등)를 통해 영향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이다.

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적대적 M&A가 시도된 적은 많다. 성공한 적도, 실패한 적도 있지만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적대적 M&A시도는 더욱더 빈번해질 것이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국내기업 간 뿐만 아니라 국내, 해외 기업 간에도 쉽게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, 기업, 주주, 이해당사간의 바람직한 방향의 적대적 M&A문화형성이 필요할 때이다.

